



## 제직 안수/임직예배

지난 9월 20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직안수 및 임직예배가 있었습니다. 김성현, 이정규 집사가 장로로, 김여영 집사가 권사로, 그리고 12명의 서리집사(김상기, 박선희, 박진옥, 배한원, 안명훈, 윤선미, 이기순, 이승연, 이원기, 이정일, 조유미, 태영미)가 안수집사로 임직 받았습니다.



임직 및 안수받은 분들은 서약 문답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친구없이 외롭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주고, 나아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힘쓸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후, 안수례가 진행 되었는데 목사님과 장로들이 무릎 꿇고 앉은 안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노회 총무이신 Wayne Parrish 목사님께서서는 새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참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라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방향을 알려 줄 나침반이 필요하다’ 며 임직 받은 모든 이들에게 나침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후, 임직자들이 준비한 헌물 증정이 있었고, 안수 집사 대표로 이정일 집사와, 그리고 김성현, 이정규 두 장로의 답사가 있었습니다. 임직 예배후에는 에스더 여선교회에서 주관하고 각 구역에서 준비한 비빔밥을 전교인이 함께 먹으며 임직예배를 축하하였습니다.



## 10월호차례

- ☞ 제직 안수/임직 예배
- ☞ 담당목사 메시지
- ☞ 당회소식
- ☞ 교인위원회의 소식
- ☞ 교육위원회의 소식
- ☞ 안수 임직 권면 말씀
- ☞ 장로, 안수집사 취임 답사
- ☞ 집사회 소식
- ☞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 ☞ 웨마의 밤
- ☞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와서
- ☞ 중고등부 소식
- ☞ 유년.초등주일학교 소식
- ☞ 중앙 4구역 소식
- ☞ 청년 1.2부 소식
- ☞ ECC 피아노 기금 모금 음악회
- ☞ 교인 동정/광고
- ☞ 새교우 환영반 소식
- ☞ KCB 갤러리

# 기다리는 마음

얼마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함께 점심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아 약속을 하였습니다. 만나기로 한 전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미루었습니다. 취소하길 잘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심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또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감기 몸살이 온 것입니다. 다시금 약속을 취소 하였습니다. 2~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날 집에 와보니 친구로부터 메세지가 와 있었습니다. 또 만나자는 메세지였습니다. 저는 그 주보다 그 다음주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다음 날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저를 만나고자 기다리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마음이 서로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수 많은 사람이 한 가지를 기다릴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최근 보스턴 근교에 어떤 큰 상점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개점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몹시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마음이 상점 건물을 넘어 주차장까지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다림의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함께 기다립시다. 우리의 기다림의 마음이 부르클라인을 차고도 넘치게 하십시다. 우리의 기다리는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 당회 소식

당회 서기: 김문소 장로

1. 신임 제작- 안수 임직 허락: 피택 장로 2명 (김성현, 이정규)과 안수집사 (김상기, 박선희, 박진욱, 배한원, 안명훈, 윤선미, 이기순, 이승연, 이원기, 이정일, 조유미, 태영미-12명)에게 안수/임직을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교육관 입당 예배건:  
창립기념일이나 12월 초순경에 교육관 입당 예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 행사를 준비할 공동의장으로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와 예배 예술위원장 홍경자 장로를 위임하였습니다.

3. 건축위원회 소식:  
ECC 건축에 진행 사항은 많은 내부 공사들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새 건물의 배관(Plumbing) 일을 업체관 집사님께서 맡게 되었고, Car-pentry는 이정일 집사님이 subcontract로 일하게 되어서 앞으로 빠른 진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에 있어서는 Transformer 비용 \$28,000을 NSTAR에 보냈고, 9월 15일 Brookline Selectman Meeting에서 통과되면서, 곧 전기가 가설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A/V Control Booth 설치 허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우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 교인위원회 소식

- 활동교인: 구용환, 공경희, 김시찬/김정선 (4명)
- 전출교인: 계동성/이진희, 김한제, 김 엽, 박한우 (5명)
- 영어구역반(English 반) 구성: 김성현 장로를 중심으로 16가정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교육 2부 위원회 소식

청년 1부는 7월 세마의 밤에 식사와 특별 순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 1월과 7월 세마의 밤에는 청년 1부가 식사와 특별 찬양 순서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청년 1부는 10월16일-18일에 Regional conference Boston KOSTA 참

석 예정이고 10월 23일-25일에는 샤론 수양관에서 가을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초청 강사는 남성혁 목사님이시고, 주제는 “시대를 이끄는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 <안수/임직식 권면의 말씀 (Charge) >

### “우리의 나침반은 성령입니다.”

Rev. Wayne Parrish (노회 총무)



리더로서 우리들에게 당면한 도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세찬 폭풍이 우리를 둘러싸고 몰아칩니다. 저는 마태복음 14장 22~33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불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의 조그만 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 아래로 요동치고 있는 파도를 보았을 때, 그는 놀라서 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궁금해 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 도전에 부응하지 못했을까? 그가 예수님을 닮기를 그렇게도 원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배 밖으로 나온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을 배에 태워 내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같은 목적과 임무를 가진, 마음이 합쳐진 그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를 함께 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들이 하나의 미션으로 다같이 하나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선발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나 공천위원회로부터 요청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들 자신이 선택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거친 폭풍우를 몰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우리를 둘러싼 도전들에, 혹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우리가 배 안에만 있게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스턴 한인교회의 새로운 리더들로서, 여러분들은 배 밖으로 길을 인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능력있는 리더쉽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으로 부터 들으십시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꺼이 순종적인 행함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배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모험적이기도 합니다. 안수식 선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우리를 상상력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청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를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창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ECC 새 건축의 도전을 감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해야 합니다. 크리

스친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가 필요합니다. 리더들로서 우리는 혼자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주님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고 준비시키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불어오는 폭풍과 파도, 도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베드로가 그러했듯이-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장의 지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입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바다로 인도 하실 것입니다.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 말씀 공부를 통해, 작은 친구의 그룹들 안에서 사랑의 강한 끈을 통해, 부르克拉인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함을 통해, 니카라과로 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두려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여러분의 섬김의 사역이 우리를 보트 밖으로 나오게 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미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 장로 취임 감사

김성연 장로



우선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저를 이렇게 새롭게 쓰시려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자리에 섭니다.

저는 고등학교때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97년부터 다닌 이곳 보스톤 한인교회에 시작했습니다. 서리집사와 안수집사를 받고 예배 위원회, 교인 위원회 등에서 교회를 섬겼고, 지난 5년간은 중고등부 부감집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신앙을 이끌어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입니다. 저의 모자란 부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항상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아직도 제가 한국에 돌아와 한자리 할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십니다. 이젠, 아마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배운 또 한 사람은 제 아내인 이은주 집사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집에서나, 언제나 봐도 항상 모든 일에 저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남을 위할 줄 알고, 신앙심도 저보다 더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던 동안, 학생들 보다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봄 중고등부 수양회에 따라 가서, 그곳에서 기도 중 여러 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가지로 어려웠을 때, 기도 중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너를 힘들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믿지를 않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일을 위해 쓸 것이니 힘들어 하지 말아라.”

이제 저를 주님의 사업을 위해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 장로 취임 감사

이정규 장로

저는 장로로서 많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 하라시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린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생기는 생리현상이죠.

피택 받고 수락 후 교육을 받으면서 더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전 해당사항 없습니다”  
불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장로 아니라도 봉사할 수 있어,,,  
편하게 신앙생활 해, 그냥...  
사탄의 꼬임은 계속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보일 것이라고는 별반 없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장로로 세워지며 안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에 순종하려 합니다” “교회는 저를 키웠습니다” 쓸모없는 저를 택하여 주시고, 세례 주어, 필요한 자로 세우시며, 직분을 주어 봉사케 하여 끌어주셨으며, 지금도 제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장로”란 옷을 입혀 놓으시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너를 키우겠으니 넌 걱정 말고 순종하며 따르거라”  
그러곤 넌 고백하라 “교회가 널 키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기적을 여러분은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십시오.

몸의 지체가 많습니다. 모두다 맡겨진 일에 언제나 충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만의 독특한 향기의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향기를 늘 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의 가슴은 두근두근 떨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과 또 다른 설레임의 두근거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의 떨림으로 말입니다.

# 안수 집사 대표 감사

이정일 집사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기

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 된 보스톤 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영육간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해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임직을 받는 자리에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더 열심히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주님과 교회가 기뻐하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며, 크고 작은 결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따르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와 공식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우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췌록 이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및 필요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집사회 소식



집사회 도서부 (부장: 김은정 집사)에서는 신앙 서적을 위주로 신간 도서 31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도서관에 새로 진열해 놓았습니다. 올해 총 56권의 신간 도서를 구입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지셔서 저자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신앙서적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도서관을 정리해 주시고 신간도서를 제 때에 구입해 주시는 김은정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16일에는 집사회 구제부 (부장: David Choi 집사, 차장: 김동숙 집사)에서 중앙4구역 (구역장: 고진수 집사)과 함께 Boston Rescue Mission에서 운영하는 homeless shelter를 방문하여 150명의 homeless 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김동숙 집사님과 이경자 집사님을 주축으로 2개월마다 homeless 분들에게 음식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11월달에는 집사회 풍물팀인 하늘 소리와 함께 봉사할 계획입니다.

집사회 문화부에서 후원하고 이성숙 집사님이 후원회장으로 계신 Haffner sinfornietta 오케스트라 공연이 9월19일 저녁에 Brandeis University에서 열렸습니다.

청중들은 단장겸 지휘자이신 박진욱 집사님(이성혜 사모님 말씀으로는 “박마에”)의 환상적인 지휘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현란한 연주에 심취되어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Haffner sinfornietta는 공연 수익금 및 후원금으로 community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날은 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1년에 3-4회 연주회를 갖는데 다음 공연에는 꼭 한 번 관람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집사회의 풍물팀인 “하늘소리”의 제2차 공연이 9월 26일 쉼마의 밤에 있었습니다. 하늘 소리는 지난 5월 제직 수련회에서 1차 공연을 한 후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연습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공연을 보신 많은 분들의 격려와 찬사가 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매주일 몇 시간씩 시간을 내셔서 사물놀이 전파라는 사명감으로 저희들을 지도하고 계신 최원석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각 선생님이니 중매 좀 부탁드립니다.)

#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지난 9월 19일(토)에 동북대회 주최 연합선교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뉴저지, 뉴욕 주와 메사추세츠 주의 13개의 한인 교회에서 약 40여명의 여선교회원들이 참가하여 전에 없었던 성황을 이룬 모임이었습니다.

강사로 우리 교회의 행정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윤경문 목사님이 “여성의 영성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성서적 영성과 여성들의 영성에 특징을 돌아보고, 한 성서이야기(마가복음

의 마리아가 옥함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읽으며 여성들만의 독특한 영성이 이 세대에 선교적 상황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은혜롭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부의 강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봉사 활동하신 조은샘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분의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간증과, 현지에서의 사역활동을 듣고 봄으로 또다른 은혜의 체험을 하는 뜻깊은 선교대회였습니다.

특히 참석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해 주신 맛갈스럽고 예술적인 진수성찬을 대접해 주신 여선교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외에도 프로그램을 위해 개인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찬양을 인도해 주신 김영순 집사님, 예배 반주를 해주신 김경아 교우님, 또 책상과 밥상, 의자 운반 등등 힘든 일을 해 주신 몇몇 남성 집사님, 장로님, 하루종일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이봉옥 집사님, 끝으로 개회 예배의 설교를 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긍지를 보여주신 이영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9월 쉼마의 밤

9월 쉼마의 밤은 추석을 맞아 함께 식사를 나누며, 집사회의 사물놀이팀인 ‘하늘 소리’ 팀의 특별 순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집사회의 한국 문화부의 소속인 ‘하늘 소리’는 제 2의 회년을 향해 한민족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란 소개에 이어, 신나는 사물놀이 장단을 연주해 주셔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한껏 신나는 한 민족의 고유의 리듬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물놀이의 연주 중간에 안성완 집사님의 다음과 같은 추임새가 쉼마의 밤에 흥을 열어 주기도 했습니다.

- 보스톤 한인교회 쉼마의밤 모였으니,
- 우리모두 다함께 쉼마의밤 즐겨보세,
- 3세대가 함께하는 쉼마의밤 기도모임,
- 우리들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네...

이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송’이 있었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제목의 담임목

사님 말씀이 있었으며, 다음의 한편의 시를 소개 하셨습니다.

<어부>

바닷가에 매어 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김중삼 시인).

말씀에 이어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우님들 중 아픈 환자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ECC 건축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9 선교를 무사히 다녀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고 이 모든 일정과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9 단기 선교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26명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교육팀, 의료팀과 봉사팀으로 나뉘어 이동홍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여러 현지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료팀은 일반 진료, 치과 진료와 약국으로 나뉘어서 봉사하였고 봉사팀은 미용 봉사를 하였습니다. 교육팀은 오전에는 현지 교회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오후에는 현지 선생님들과 함께 그곳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6일 동안 같은 일정으로 다른 장소에서 봉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말 자체는 익숙하지만 저에게는 미루어져 오던 숙제 같은 의미였습니다. - 중략 -  
 덥고 낯선 그곳에서 우리가 주로 만난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곳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환경과 그들의 모습은 나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감기는 전혀 치료 받지 못하여 진료한 많은 아이들이 중이염을 앓고 있었으며 씻지 못하고 덥고 습한 기온으

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일찍 결혼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노화도 빠른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주일 동안의 진료, 봉사, 교육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전부라면 그 의미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 중략 -  
 선교가 기도로 이루지는 이유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추상적이었던 선교지를 방문함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행함으로 선교사님과 선교지, 선교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머리를 털면 이가 나오고 작은 날과리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손 잡기도 꺼려졌던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생각한 그들의 외형적인 가난, 아픔, 고통 속에 가리워져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선한 눈동자를 그리고 미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저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